

메시지 3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건축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냄

성경: 빌 2:12-16

- I. 노아가 건축한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현재의 실지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현재의 실지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이다. 빌립보서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빌 2:12-13.
- A.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이다.
- B. 노아가 공들여서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곧 방주였다. 우리에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현재의 실지적인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 C.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 곧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사람인 교회의 예표이다—창 6:14, 고전 12:12, 엡 2:15-16, 골 3:10-11.
1.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의 요소를 건축 재료로 하여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의 예표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고전 3:9-12상, 고후 6:1, 엡 3:8-10, 4:12.
 2.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여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악한 세대에 내리신 심판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 새로운 시대 안으로 인도되었다—창 8:13-19, 뱀전 3:20.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현재의 실지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함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해 오늘날의 악한 세대에 내리실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마 24:37-39, 눅 17:26-27, 살전 5:3), 그 세대에서 분별되고(눅 21:36, 계 3:10) 새로운 시대, 곧 천년왕국 시대 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 D.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유죄 판결과 불 못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매일의 지속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은 바로 살아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빌 2:15.
- E.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노정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노정 안에 들어왔고, 이 노정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1. 노아는 방주를 더 건축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더 통과하였고, 결국 자신이 이루어 낸 것 안으로 들어갔다—창 7:7.
 2.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건축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래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우리가 건축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3.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건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요 15:5.
 - a.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매일 매시간 주님과 함께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창 5:22-24, 6:9.
 - b.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건축하여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F. 네 장으로 이뤄진 빌립보서 전체는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살아 있는 인격에 대해 말한다.

1. 빌립보서 1장에서 구원은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2. 빌립보서 2장에서 구원은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다.
3. 빌립보서 3장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4. 빌립보서 4장에서 구원은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고, 미덕과 칭찬으로 가득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II. 빌립보서의 각 장은 우리의 매일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특정한 방면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건축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준다—빌 3:12-13, 비교 합 1:1.

A.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내적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다—빌 1:8, 엡 5:25, 고후 12:15, 요일 3:16.

B.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곧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취할 수 있다—빌 1:19-21상, 요 6:57, 갈 6:17-18.

C.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으로 체험할 수 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 고립되지 않았고 몸의 공급에서 끊어지지도 않았다—빌 1:19, 요 16:13.

D.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할 수 있다—빌 2:3, 5, 비교 엡 4:23, 롬 12:3.

E.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으로 체험함으로, 그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힐 수 있다—빌 2:12-16.

F.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전제가 될 수 있다—빌 2:17.

1. 전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참 포도주로 쏟아 부어진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출 29:40-41.

a. 그리스도는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로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신다—삿 9:12-13.

b.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누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다—고후 1:24하, 비교 5:13-15.

2. 전제는 그리스도 자신의 예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쏟아 부어질 때까지,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마 9:17, 빌 2:17, 딤후 4:6.

a. 전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포도주가 되게 한다.

b. 전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되실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다.

c. 우리는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할수록 더 많이 전제가 된다—민 15:1-10.

G.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획득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빌 3:7-9상, 엡 3:8, 창 15:1, 고후 12:2.

H.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낸 의로 취할 수 있다—빌 3:9하, 비교 사 64:6, 마 5:20, 계 3:18, 19:8.

I. 우리는 계시와 체험 모두에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 수 있다—빌 3:8, 10, 2:2, 3:13.

- J.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 그분을 우리의 상으로 누릴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야 한다—빌 3:12-14, 7-8.
- K.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빌 4:4, 히 13:15, 시 119:164.
1. 빌립보서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책이다—빌 1:4, 18, 25, 2:2, 17-18, 28-29, 3:1, 4:1, 4.
 2.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처형 또한 자신을 돌보아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워치만 니 형제님이 1972년 감옥에서 처형에게 쓴 편지에서(*신성한 계시의 선견자—워치만 니 전기* 300쪽).
- L.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관용과 미덕들로 체험할 수 있다—빌 4:5, 8.
1.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2.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의 염려를 관용으로 바꿀 수 있다. 대화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왕래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며, 바로 이러한 왕래,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에 의해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누린다.
 3.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인 여섯 가지 미덕을 제시한다.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의 내면에서부터 살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표현이다.
- M.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결로 배울 수 있다—빌 4:11-12, 6-7.
1.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충족되고 만족하며 흡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러한 비결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2.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곧 어떤 일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배웠다—빌 4:12.
 3.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행 9:3-19, 25-28, 22:6-21, 13:1-4.
 4.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며(빌 1:21상), 어떻게 그리스도를 확대하고(20절),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으며(3:8, 12),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는지에 관한 비결을 배웠다(1:9, 19, 2:1-4, 19-20, 4:1-3).
- N. 우리는 그리스도를 능력 주시는 분, 곧 우리에게 동기 부여를 하시는 분, 우리에게 내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서 취해야 한다—빌 4:13.
1.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말은, 특별히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 살고, 또한 그것에 의해 그분의 무한한 위대함 안에서 그분을 확대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에 적용된다—빌 4:8-13.
 2.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빌 4:11-12, 8.
- O.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대로 취할 수 있다—빌 3:20-21.
1.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생활은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이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2. 믿는 이들이 영광스럽게 됴에 도달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 것이다—고후 3:18, 4:17, 히 6:1상, 롬 5:10상, 계 21:10-11.